

변리사스쿨 11월 실전모의고사 정오표

【산업재산권법 이의신청 내용】

[16번] 모의고사에서 문제가 문제지에선 2025년 2월 7일 발명 a의 상세한 내용이 박람회에서 공중에서 공개되었다고 하는데 문제 해설지에서는 2023년 2월 7일 공개되었음을 전제로 해설을 전개하고 있어서 문제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2025년 2월 7일 공개되었음으로 문제를 이해하여서 1번 지문인 보완수수료를 납부하며 공지한날로부터 1년 이내이기 때문에 공지예외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답변) 문제 오류 없습니다.

수업시간에 강조드린 것처럼 타인 발명에 대해서는 공지예외주장 자체가 불가합니다.
해설에 오탏가 있습니다.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2023년이 아닌 2025년입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번] 20번에 3번 지문에 경우 옳지 않은 것임을 해설지를 통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4번 지문에서 여러 선행기술 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
이 부분에서 해설지에 있는 판례를 보았을 때 // 선행기술 문헌을 인용하여 혹은 그 인용되는 기술을 결합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이를 수 있음이 인정되면 진보성이 부정된다. 라는 식으로 진보성이 없음을 판단하였는데 이런 판례 문구가 <<진보성을 판단할 때 = 진보성이 있음을 판단할 때 혹은 진보성이 없음을 판단할 때>> 2가지 해석이 가능한 표현으로 바꾼 지문 또한 오답으로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4번 지문 또한 복수정답으로 이의신청합니다

답변) 문제 오류 없습니다.

판례 수업에서 논리 많이 강조드린 판례이며, 1, 2차 기출 모두에서 상당히 여러 번 반복 출제된 매우 중요한 판례이니 잘 정리해주시면 좋습니다.
본 지문은 여러 선행기술 문헌의 결합 조건입니다. 진보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닙니다.
판례 수업에서 구분하여 자세히 설명 드렸으니 필기 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본 판례에는 2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여러 선행기술문헌의 결합 조건에 대해 출제한 것이 4번 지문입니다.

20번에 4번지문에 관해서는 아직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래는 제가 검색해서 얻은 판례 문구입니다. 아래 판례를 통해서 4번지문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 판결에서는 진보성을 판단할 때(<-본 지문 문제 구성)가 아닌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하기 위해서라고 정확한 문장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축약한 표현이 정답이 된다는 말이 여전히 이해가 어렵습니다. 저는 과학탐구만 변리사스쿨에서 수강중인 수험생이라 직접 판례강의에서 해당내용을 찾기 힘든부분이 있습니다 귀찮겠지만 판례강의에서의 해당 지문의 설명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문제 오류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판례(2005후3284 판결: 특히 진보성 판단기준)의 두가지 쟁점 중 하나인 해당 내용은 진보성 평가 전 2 이상 선행발명 결합 조건에 관한 지문입니다.

지문에 명시된 그대로의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차 및 2차 시험 모두에서 매우 빈번하게 출제되어 온 핵심 판례이므로, 반드시 체계적으로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재차 강조드리자면, 이는 특히법 진보성 판단의 근간을 이루는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제 강의에서는 이 부분의 기초 개념 설명만 해도 약 20분 정도 소요되는 만큼, 텍스트로 상세히 안내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 내용은 어느 강의를 수강하셨든 반드시 상세하게 학습하셨어야 할 중요 판례인데, 아직 충분히 숙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다소 우려스럽습니다.

해당 판례의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기준을 교재 및 판례집을 통해 다시 한번 철저히 정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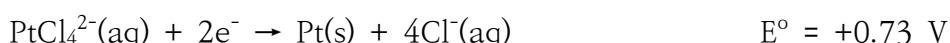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연과학개론 이의신청 내용】

[18번] 문제에서 주어진 반쪽 반응 중, 3번째 반응의 환원 전위 값 부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해당 반응의 환원 전위가 문제에 기재된 대로 $-0.73V$ 라면 문제에서 ↗번 보기와 답이 될 수 없어 정답이 1번이어야 하는데, 답안지에 기재된 풀이에서는 3번째 반응의 환원 전위를 $+0.73V$ 로 두고 풀어 5번이 답으로 기재되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문제 오류로 전원 정답.

문제 표기 오류로 정정 공지합니다.



세 번째 화학식 옳은 지문은 $+0.73V$ 가 맞습니다.

확인 결과, 검수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미처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말씀해 주신 18번 문제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원 정답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18번] ↗에서 “순수한 질산/염산”이라는 키워드가 사용되었는데, 수용액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순수라는 수식어가 붙어 질산 수용액인 $\text{NO}_3^-(\text{aq})$ 보다는 순수한 $\text{HNO}_3(\text{l})$ 라고 해석할 여지가 더 크다고 봅니다. 질산이나 염산 용액 또한 상온에서 액체인것도 감안하여 환원전위에 무언가를 더 계산해야하나 하는 의문이 들었기에 이의신청합니다.

답변) 이의신청 되지 않습니다.

- 순수한 질산/염산이라는 지문에서 수용액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질문 : 염산/질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수용액임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은 의미가 없습니다. 염산이라는 것은 $\text{HCl}(\text{g})$ 가 물에 녹아 있는 상태를 염산이라고 부르므로 염산, 질산이

라는 의미는 이미 수용액상태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2. 순수라는 단어로 질산이 NO_3^- 이 아니라 HNO_3 가 아니냐는 이의신청 : 질산은 강산이므로 물속에서는 당연히 100% 해리되어 H^+ (수소양이온)과 NO_3^- 으로 해리됩니다. 따라서 NO_3^- 의 환원 반응식을 적은 그 지문은 이의신청이 되지 않습니다.